

혼돈 속에서 조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현대의 불자들이 우선 지녀야 할 덕목은 바로 연기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무량심을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정토회(대표 법륜)가 1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혼돈 속의 조화'를 주제로 개최한 기념 심포지움에서 술락시바라사(태국, 환경·평화운동가)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등이 이 같이 강조했다.

술락시바라사(65)는 '환경문제의 정치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인간의 탐심(貪心)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프라 프라차스님(태국) 등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경 파괴자들에게 모두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술락시바라사는 환경문제는 '다분히 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불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사무량심을 토대로 우리의 탐심을 없애는 등 환경의 정화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량심이란 모든 사물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慈·Metta).

# 연기법 알면 생명위기 극복

## 정토회 '혼돈속의 조화' 주제 심포지움

술락시바라사 "사무량심이 환경보호 해결책"

도법스님 "서로 존중·포용할때 평화 구현"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 바라는 마음(悲·Karuna). 언젠가는 선해질 것이라는 바람(喜·Mudita). 경정한 마음(舍·Upekha).

술락시바라사는 "사무량심은 우리에게 자비(慈悲)를 토대로 도덕적 용기를 갖게하며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착취와 고통에서 만물의 해방을 바라는 품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운동, 깨달음을 발표한 도법스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미혹과 무지로 인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주적 생명질서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논리로 삶을 이끌어갈 때 아름답고



◇도법스님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비인간화와 생명 위기의 상황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에 따른 세계의 실상과 존재 가치를 깨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깨달음', '민족통일', '환경' 등 세 주제로 진행된 기념 심포지움에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생명의 질서와 새로운 윤리'(김용정 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이 발표됐고, 동국대 예술극장을 가득 매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은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창립 10돌 맞은 정토회

### 환경운동 목표로 설립 JTS 인도·北돕기 활발

80년대 후반부터 불교계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지력을 보여온 정토회(대표 법륜스님)가 16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토회가 걸은 여정은 '맑은 마음·좋은 벗·깨끗한 땅'이라는 정토회 실천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묻는 화두가 깊어 배어 있다.

포교·복지·평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토회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화두는 바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야 하고, 기본적인 식·주가 보장되며,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자연환경은 쾌적하고 생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토회는 7경 규모의 흥제정토포교원을 거점으로 88년 발족했다. 당시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눈물리지 않았던 환경

운동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이어 국제적인 기구구호사업을 위해 91년 JTS(Join Together Society)를 설립, 93년 12월부터 인도의 불가촉천민 지역으로 알려진 동케스와리에서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정토회 사회활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9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북한동포돕기 운동이다. 이 운동으로 정토회가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은 12억 여원, 이 수치는 불교모금사상 가장 많은 액수이다.

이 땅에 정토를 실현하고자 발원한 정토행자들이 93년부터 부처님 열반일을 기해서 1만일결사를 시작한 것도 정토회의 뚜렷한 발자국이다. 현재 1만일결사 중 제2차 천일결사가 진행중이다. 정토회는 현재 서울의 중앙법당과 8곳의 지역법당, 문경수련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정토불교대학, 월간 <정토> 등 조직을 갖추고 지구촌 정토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노래에 맞춰 춤을 선보이는 법회사 새싹불자들.

## 제주 법회사 어린이회 창립

서귀포지역 어린이 2백50명 가입

11일 오전 11시 법회사(주지사문스님, 제주도 서귀포시) 대웅전 앞마당은 풍선을 들고 삼삼오오 짝지어 뛰어다니는 어린이들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부대중들로 가득 메워졌다. 잠시 후 연단에 올라선 한복스님이 마당의 부산함을 정리하며 법회사 어린이회 창립제를 시작했다.

"불교가 무엇이예요." 한복스님의 질문 한마디에 지금까지 종선과 친구들과의 놀이에 푹 빠져 있던 아이들이 연단 앞으로 모여들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에

요"라고 대답했다. 어린이법회 시작과 함께 정연한 모습을 찾은 2백50여명의 어린이들에게서 맨날 제주 서귀포시의 불교 위상을 가늠케했다.

어린이법회의 준비를 도맡아 온 한복스님은 "창립제까지 해서 12번의 어린이법회가 봉행됐다. 어린이법회는 정소와 한스님의 원력만으로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다"며 "그동안 사전연습과 같은 어린이법회를 병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지도자들의 교육,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개선 등 부대사업들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 '꿈나무' 키우는 푸른도량

### 목동청소년회관 26일로 개관 10돌

#### 69개 강좌...21세기 정보화 산실 지향

청소년 문화활동의 요람인 목동청소년회관이 26일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통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전국비구니회기 위탁·운영해온 회관은 '서원, 자비, 인유, 정진'을 관조로 부처님 가르침을 청소년 복지를 통해 구현해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88년 회관 개관 당시 서울시에 위치한 청소년회관은 기독교 운영의 문제청소년회관을 포함 총4개였다. 따라서 교계의 회관 위탁은 청소년 포교의 주춧돌이자 청소년 복지의 단초를 마련한 혁신적

인 사건이라 수 있다. 현재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유아, 어린이, 직장인 및 주부를 위한 교양 취미 체육 등 전국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중 비행청소년을 위한 '일탈 청소년 제자리 찾기'를 비롯해 교육문화사업 6개 분야 31개 프로그램(회원 7백28명), 사회체육사업 4개 분야 26개 프로그램(회원 1천7백26명), 상담사업 1개 분야 12개 프로그램(회원 62명)으로 총 11개 사업 69개 강좌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관장 명우스님은 "21세기를 앞두고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절실해지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정보문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과 새로운 대안으로 청소년 지역사회교육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청소년단체 지부설립 잇달아

### 대구 파라미타 동화사서 31일 출범

### 청교련 내달중 강원·해남에 교두보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가 될 지부들이 연이어 창립을 전망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31일 동화사에서 대구지부를 마련하고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도 내달 중 강원지부와 해남지부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불교학생

회를 중심으로 창립될 파라미타 대구지부는 지거스님(동화사)이 산과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미 4백여명의 '예비' 회원들이 포진한 상태. 지거스님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슬라이드 영상매체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

를 통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각스님(상불원 주지)은 자연학습원을 이용한 청소년 포교 전략을 세워 놓고 청교련 강원지부의 개원을 서두르고 있으며, 영주스님(전남 봉우사 주지)은 청교련 해남지부의 창립을 손꼽고 있다.

영주스님은 "전남지역은 인구비례로 계산해볼 때 기독교가 우세한 특수한 지역"이라며 "청교련 해남지부의 결성을 계기로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주부신행담

###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3·끝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난 소희에게 약속했다. 내가 소희한테 가면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같이 있겠다고. 무릎이 닿도록 절을 하며 다짐 또 다

짐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던 독소는 소희와 같이 불장난을 하다가 살아남은 은미에게로 향했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은미를 데리고 죽으려는 악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지장보살님께 매일 같이 기도를 하던 어느날 소희의 천도 재를 읊었다. 부처님 앞에 천배도 드렸다. 불자인양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또한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독소를 향한 기도이기도 했다. 부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면 결코 저지를 생각도 못했을 것을 소희를 위한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짓을 과감히 실행하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천배를 올린 다음날 난 은미의 집으로 가서 은미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이미 은미가 아니었다. 마음 속 한구석에서부터 서서히 내 딸 소희로 느껴졌다. 그런 느낌이 너무도 이상했다.



그림·문병성

## 죽이려던 아이가 내딸로 느껴져...

그래도 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는 내 딸 소희를 죽게 만든 은미라고. 악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은미를 집으로 데려왔다.

은미를 죽이지 못하면 실컷 두들겨 패기라도 해야 하는 악랄한 마음으로 데려왔지만 부둥켜 안 은미의 조그마한 손은 너무도 따듯했다. 지구 소희 생각이 났고 나도 모르게 악하게 먹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때 부처님의 넓은 미소가 내 눈에 보였다. 지장보살님의 모든 종생을 구제하신다는 자비로운 말씀이 머리 속을 가득 메웠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고 부끄러웠다. 소희도 은미도 모두 내 딸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내 자신이 너무도 소름끼쳤다.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가여운 하나의 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깨달음이 다가왔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자비로 우리 소희를 죽음과 바꾸게 만든 은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싶었다. 은미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악한 심정을 울면서 참회했다. '소희야 너도 은미를 용서해 준거야. 그리고 좋은 가정에 인연맺어서 못다 산 삶을 다시 한 번 사는 거야. 이제 얼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기도해 줘. 꼭 약속하마. 며칠 있으면 너의 열번째 생일날이지. 케이크 사가지고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때 우리 많은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해졌고 웃을 수도 있다. 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고 나서야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지만 열심히 정진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덕에 악한 마음을 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 우리 소희를 위해서도 평생토록 참회하며 살 것이다. 내게 올바른 마음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을 경배하며 자리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은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 특 권

1. 법적으로 누구나 본회회 직권을 취득 후 사무실의 필수와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회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혜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 락터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법사·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침구사·대체의학연구자

▶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티교육 (짜다리교정법, 족시호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특허청등록번호 제13235호】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 불교 명예 학인 모집

본 교에서는 대구·부산에서 3년동안 무료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특별 장학생(명예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내용 ●

■ 부산

1. 강의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2시~4시
2. 강의장소: 좌천동 우체국옆길·파란들가구3층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3. 모집인원: 오전반·오후반 각 100명
4. 졸업혜택: 3년무료(교재·회비일체)·졸업증서 및 자격증수여

■ 대구

1.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2시~4시
2. 강의장소: 신암2동 강남 APT 정문 서쪽 2층 (한국승가대학원 법학경영연구소)
3. 모집인원: 오전반·오후반 각 100명
4. 졸업혜택: 3년무료(교재·회비일체)·졸업증서 및 자격증수여

UN·IAEWP 지정·평화교육기관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광영(공덕)  
053-952-8711·017-501-8711

## 청국장은 암예방 및 장수식품

청국장 발효제 쿠쿠

구수한 맛을 살리고 주변에 풍기는 지독한 냄새 제거

완전자등!!

특별보급가: ₩170,000  
분할가: ₩30,000×7회

연구개발 한국청국장연구소

보급처: 한마음 051)865-1182 하나하나팔리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코로나서비스: 080-007-1182